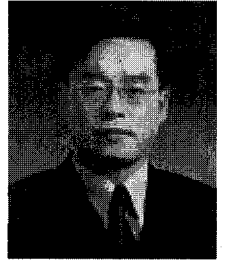


변화에의 대응



안 호근 과장
(농림부 통상협력과)

FTA의 이해

10년 전만 하더라도 다소 생소하게까지 들리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이란 말이 요즘 부쩍 많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과 칠레간의 FTA 협상이 진행중에 있고 일본과는 산업계, 정부,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관·학 공동연구회(Joint Study Group)」를 만들어 과연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양국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지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자유무역 협정(FTA)이란 협정에 참가하는 나라들이-두 나라일 수도 있고 여러 나라일 수도 있다-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관세를 모두 철폐하고, 관세 이외에도 무역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이 있다면 이 역시 철폐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가간의 무역은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WTO 협정은 기본원칙의 하나로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관세인하 등 조치를 취할 경

우 그 나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WTO회원국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FTA 협정은 협정 당사국에게만 관세철폐 등의 혜택을 주고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혜국대우'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 그러나 WTO에서는 FTA가 배타적이지 않으며 당사국간에 교역을 증진시킨다는 전제하에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FTA가 WTO협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WTO협정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GATT 제24조는 FTA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관세 및 불합리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FTA는 그 속성상 확대지향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A국가와 B국가가 세계시장에서 어떤 상품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만일 A국가가 C국가와 FTA협정을 맺을 경우 A국가는 C국가에 대해 상품을 관세를 물지 않고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B국가는 관세를 물고 수출해야 하므로 A국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게된다. 따라서 B국가도 A국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C국가와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 요즘 전 세계적

으로 FTA가 확대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구조적 유인 외에 또다른 메카니즘도 작용하고 있다. 무역자유화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원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때 현재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가 만족스럽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FTA가 제3국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FTA의 확산이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교역자유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FTA는 합법적인 수단 의 하나로 점점 그 수가 늘고 있는 것이다

WTO 자료에 따르면 2000년 7월 현재 이미 체결되었거나 협상중인 것으로 WTO에 통보된 FTA는 240개이며 실제로 효력을 발효중인 FTA는 148개로 나타나 있다.

FTA와 한국 농업

우리나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앞으로도 경제구조상 수출을 늘려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요 논거이다. 사실 확대되고 있는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여 세계시장에서 우리가 경쟁해 나가기 위해 FTA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여러나라와 FTA를 체결하자는데 선뜻 쌍수를 들고 환영만 할 수는 없다는 데 농림 공직자로서의 고민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농업이 아직은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세상 만사가 그러하듯이 FTA도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나라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국내적으로 이득을 보는 분야도 있고 또 손해를 보는 분야도 있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농업부문은 현재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FTA를 체결할 경우 우선 대개 이익보다는 손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이후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우리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적인 개방 효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FTA를 추진하자는 데 망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금도 피약벌 아래서 구슬땀을 쏟고 있을 우리 농민들을 떠올리면 FTA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FTA를 통한 교역자유화의 추구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우리가 외면만 할 수 있을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눈을 감은채로 링 밖에서 영원히 방관자로서 구경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 즉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게 될 때 우리 농업과 우리경제의 미래가 결코 밝을 수 없다는 사실에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 보다 당장에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역사적 흐름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며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상대를 잘 고르는 일이다. 경제구조상 서로 이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협상과정에서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가급적 예외를 많이 확보하고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다. 물론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만큼 우리 뜻 대로만은 되지 않겠지만 민감한 분야는 서로가 특별고려를 해 주는 방향에서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협상이 타결되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분야가 생기게 마련인데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생산비를 낮추려는 노력,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FTA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예외를 확보하더라도 여기에만 안주해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관세철폐를 장기간에 걸쳐 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관세가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점을 직시한다면 결국은 우리농업의 체질을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것이다.

사실 세계적인 개방화의 흐름은 80년대 후반기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우리농업인과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미흡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93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우리농업과 농업을 보는 시각, 그리고 우리 농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WTO의 DDA협상도 결국은 교역자유화를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얼마전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아주 짧은 책을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다. 변화에 대해 분노하고 절망만 해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변화가 두렵기는 해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그 책의 메시지였다. 농민과 생산자단체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우 리나라가 칠레와 FTA를 체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이다. 우리나라와 칠레는 산업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있고 남미시장 교두보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계절이 우리와 정반대인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자

유무역협정 대상국으로 적절하다고 보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상은 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가 있었다. 칠레측은 일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을 예외없이 10년내에 관세를 철폐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우리농업의 근간이 되는 일부 핵심품목에 대해 'FTA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DDA 협상이후로 협상시기를 연기'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앞으로 5차협상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우리의 입장을 최선을 다해 칠레측에 설명하고 협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진행중인 협상내용을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의 양허안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민단체등에게 그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상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맺음말

처 음에 언급한대로 한-일 FTA체결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산·관·학 공동 연구회」가 구성되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멕시코와는 우선 각자 FTA체결의 필요성과 이익이 있는지를 연구해 보기로 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제3의 국가와도 FTA체결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현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개방화라는 변화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해 나가는 것이다.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더 나은 미래와 발전을 낳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왜 진작에 철저히 대비해 오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고 해야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부담도 크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이고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조상님들께서 일찍이 일러주신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어 본다. ㉞